2008년의 나른한 여름
그 여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들이 평생 모은 것들이 부동산 시장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1940년대 이후 가장 깊은 불경기의 늪으로 떨어졌다.
또한 주차되어있던 캠핑카의 범퍼에 들이받으면서
대학에서의 내 미래를 시작했던 그 여름이었다.
산호세는 내가 나의 인생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노력한 곳이었다.
정신적 충격이 심했던 이른 결혼과
가장 아름다웠던 이혼 이후...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 그것은 안정적인 미래를 보증해주는 것과 같아 나는 너무나도 그것을 원했다.
교육 그것은 마치...
학사 학위는,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원해왔던 번영의 무으로 가는 그런 황금티켓 같은 것이었다.
나같은 군대 낙오자에게는 남은 평생 소매점의 잡일 같은 저금여의 일만이 남았다는 것은 확실했다. 심지어 정부가 약속했던 군대장학금을 거부했을 때에도 나는 내 미래를 위한 자금을 빌리는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 비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The Barriers to Higher Education
그림:윤에릭 번역:래이

나의 첫 번째 이사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매우 적절한 아파트였다.
새벽 두시에 오페라를 부르는 여자가 노래를 시작할 때면 나는 깊고 어두운 환상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녀의 침실에 숨어든다...
그녀의 목에 주먹을 한방먹이고 입을 닥치게 한다...
한편, 내가 정말 이해할수 없었던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은 그의 학비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은근히 속으로 학교에서 쫓겨나기만을 바랐다.
단지 그의 아버지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서 내 시간을 소비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었다.
섬세하게 정돈된 교내의 전경은 내 마음의 휴식처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곳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지식인들과 조우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방금 막 등지를 떠난 학자금 청년들이었다.
나는 그 모임을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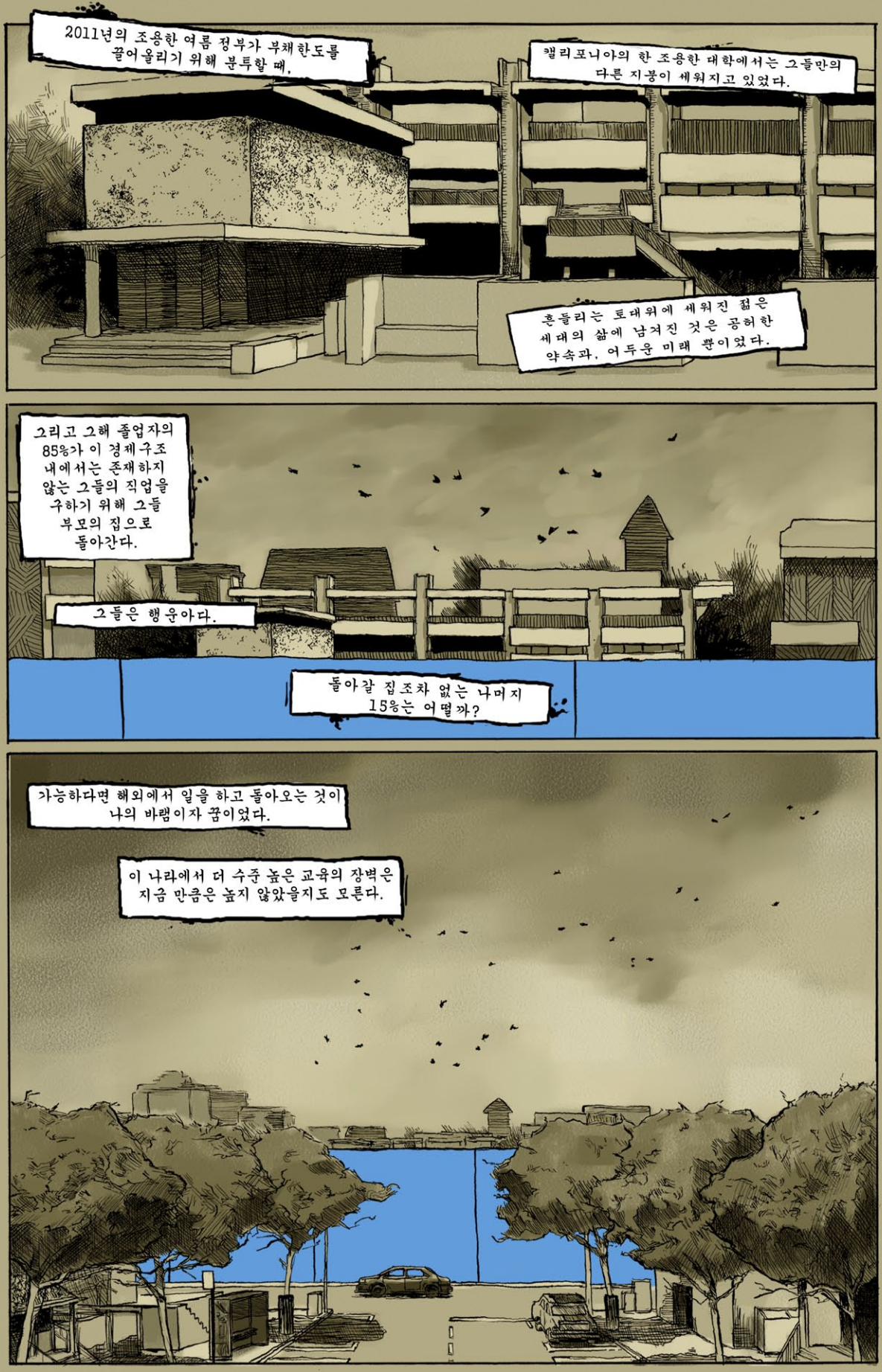
TION
O HAT
EA
CONSTRUCTION AREA
STUDENTS / STAFF
DO NOT ENTER
DANGER
DO NOT ENTER
— THIS AREA —
WARNING
TRESPASSING IS A CRIME
THEFT FROM THIS CONSTRUCTION SITE
IS A FELONY
ANYONE TRESPASSING ON THIS PROPERTY
WILL BE PROSECUTED
TO THE FULLEST EXTENT OF THE LAW
CONS
PERS
나는환영받는다고느꼈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의 등록금 인상이 있었을 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는 단지 볼링레인 뒤쪽에서 윤활유 발린 볼링공과 핀정리하는 일의 시간을 늘릴 뿐이었다.
몰래 몰래 볼링머신일 하는 틈틈이 숙제를 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필리핀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
커피.... 나의 검은 생명줄.....
나는 이일을 졸아할수 없다고 확신했다.
볼링공에 묻은 오일에 범벅이 되어있지 않으면,
일러스트레이션 수업의 목탄가루를 기침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과친구들과 함께 밤늦도록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산업"
더 큰 스튜디오 하나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와 마찰을 빚어왔던 그 땅에.
즉각적인 완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대체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부채의 구덩이로 더 깊이깊이 파고들었다.

내 주머니 속 구멍이 나를 늦은 밤의 모델일로.
모두가 경멸하던 교수"C.G."를 위해 그림을 찍어내던 예술관의 2층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 무렵.
그는 내게 말했다. 네가 하는 그 "만화"라는 것은 미래가 없는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늦은시간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모델로서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스톰워치, 가운, 기둥뿐이었다.
그리고 미소.
보수가 좋았음에도...
307
어느 여름 등록금은 33%가 더 올랐다.
그래서 나는 다른 파트타임 일을 더 찾아야 했다...
25
...미심쩍은 이유들로.
교육비는 10%가 더 올랐다.
나는 내게 필요한 수업을 듣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15%가 더 올랐다.
나는 궁금했다. 왜 이 새로운 빌딩들이 솟아나는.
택도없는 취업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나는 내가 낸 모든 부가 비용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사들은 돈도 못 받고 쫓겨났다.

Stop the Cuts!
그들이 모두 사라져버릴 때까지...
나는 나만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지 궁금했다.
나는 환상에 사로잡혀 대학에서 나의 친구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내 평생 믿어왔던, 나를 이끌어 왔던 믿음, 아메리칸드림...
교육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장치라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조금씩 빗겨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만명의 신입생들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졸업 못한 "5학년"들은 모두 짐을 싸서 학교를 떠나라고 했다.


2011년의 조용한 여름 정부가 부채한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분투할 때,
캘리포니아의 한 조용한 대학에서는 그들만의 다른 지붕이 세워지고 있었다.
흔들리는 토대위에 세워진 젊은 세대의 삶에 남겨진 것은 공허한 약속과, 어두운 미래 뿐이었다.
그리고 그해 졸업자의 85%가 이 경제구조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들의 직업을 구하기 위해 그들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행운아다.
돌아갈 집조차 없는 나머지 15%는 어떨까?
가능하다면 해외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나의 바램이자 꿈이었다.
이 나라에서 더 수준 높은 교육의 장벽은 지금 만큼은 높지 않았을지도 모른다.